

## 삶의 과정

김성훈/생명의전화·상담부장

휴가 기간 중 서울을 떠나 멀리 있게 되었다. 휴가란 글자 그대로 쉬는 것일진대, 매번 걱정을 안고 떠나 머리속에 끊임없는 상념으로 진정한 휴가를 보내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겠다. 그래서 이번 휴가는 신문도 라디오도 T.V도 멀리하고, 직장과의 연락도 단절시켜 버렸다. 물론 비상연락은 가능토록 하였으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삶의 연장 속에서 쉬며 재충전하는 시간으로서의 휴가는 어렵었을 듯 싶어, 나와 내 가족 외의 것과는 일체 연결되지 않게 시도하였다.

그렇다고 모든 일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으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의 사고와 행동에 큰 몫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매스컴이요, 내가 매일 만나고 격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곧 나의 반경임에 틀림없으니 최소한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휴식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하튼 며칠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으나 내가 속한 삶의 현장을 멀리하여 오히려 더 궁금한 것이 많고, 걱정되는 것도 하나 둘 떠올라 의도한만큼 신선놀이식의 휴가는 못되었으나 나름대로 길들여

질만하니 예정한 날짜가 지나 다시 나의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때서야 섭섭한 생각이 들어, 제대로 쉬지도 놀지도 못한 것을 후회하며 서울로 귀향하였다.

매번 그런식의 휴가가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 현재 이곳에서의 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으로 나를 지배하고 지탱해주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크게 두가지 상이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없으면 마치 안될 것 같은 일들에 그간 별일없이 진행되고 있거나, 아예 별일마저 없었던 경우에 맞이하는 느낌이다.

물론 꼭 다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며칠동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나의 의도와는 다른 데로 이미 흘러가버리게 처리되어 당혹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겠으나, 대체로 별일없이 나를 맞이해 줄때가 훨씬 많으리라.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안도감도 있으나 깊은 가슴 속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 움직인다고 생각되는 일의 테두리가, 그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 안에 나도 한 부분일 뿐이라는 왜소감이 앙금처럼 잠기게 된



다. 물론 잘못된 자만심이나 이기적 사고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지낸 것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다보니 생긴 최소한의 내 존재가치에 대한 무의식적 평가가 그랬을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나의 그 무의식적 존재가치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느낌은 이렇다. 그 며칠 동안에 무슨 사건이 그리 많았는지 오랫동안에 대해서는 T.V나 신문의 뉴스가 앞을 잘 리운 채 들으니 무슨 애긴지 잘 와닿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정치에 관심은 있어도 그게 무슨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 아닌데, 그 며칠동안 兩金이 만나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지 무슨 선언이라도 한 건지 도대체 어찌된 건지 궁금하기 이룰데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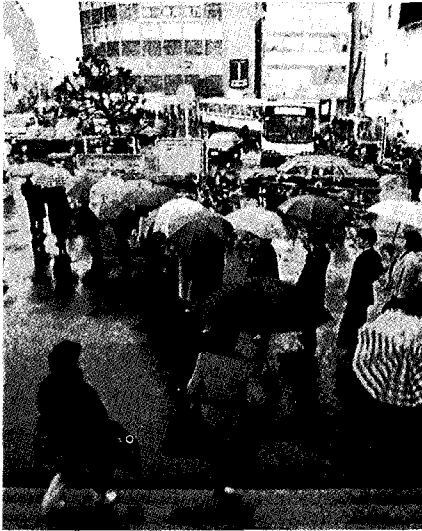
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박장순 선수가 레슬링 결승에서 미국선수를 종료 시간 몇 초전에 넘어뜨려 점수를 얻어 금메달을 따냈다는 데, 이미 다 아는 금메달 소식을 접하며 재방영되는 T.V 장면을 보니 가슴 조이며 마른침을 삼키며 응원하며 그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과 같은

홍분된 감격의 감정을 느낄수 없다는 것이다.

실상은 정치나 스포츠나 나오는 특별한 관계는 없어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또한 생의 커다란 부분이라는 것이다. 사회 모든 부분이 다 얽히고 설켜 나에게 직간접으로 통하게도 되지만, 그러한 사회의 흐름이라는 것에 우리도 같이 흐르게 되어 그 분위기나 문제를 함께 격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잠시라도 멈출수 없는 내 생의 과정으로서, 「史와 社會의 변화의 과정에 동반되지 않으면 도태되어 질수 있는 것이라는 느낌이다.

이러한 감정이 표면화되거나 실체화되어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저변에 깔려진 이러한 감정에 주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자칫 쉽게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실상, 즉 우리가 속한 그 구조문화 속에서의 나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새로운 나의 가치를 찾지 못한 것이고, 나의 성장은 둔화내지 오히려 감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자에 이따기한 느낌은 나를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



락시켜 자신감을 상실시킬 것 같은 격정이 앞서나, 올바르게 직시하면 그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의 역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우리」의 개념을 형성시켜 나의 생활을 올바르게 잡아 줄 것이다.

유희에 빠지기 쉽고 방탕하기 쉬우며, 무엇이든 쉽게 처리해 버리려는 안이함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후자의 느낌 또한 나와 상관이 없으면 지나쳐버리는 무책임감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항상 배워야 한다는 자세와 이웃에게 관심과 배려할 줄 아는 태도가 몸에 익혀질 것이다. 항상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거리를 불평과 불만으로 지적만 하고 있지 않고, 나만이라도 바른 삶을 살려는 깨어 있는 의식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바로 부정적 사고에서 긍정적 사고로,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이기적인 욕심에서 타인 지향적 봉사의 마음으

“  
우리가 속한 그 구조문화  
속에서의 나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새로운 나의  
가치를 찾지 못한 것이고, 나의  
성장을 문화내지 오히려 감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삶이 될 때 우리의 노년기는 쓸모없는 삶, 덤으로 사는 삶이 아닌 그러한 청장년의 과정의 연장으로서 삶, 승패에 관계없이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노년기에 맞추어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마치 노년기가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人生— 즉, 노년기가 되면 오히려 할 일 없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만 비쳐주기 때문이다. 삶은 과정이다. 유년기—소년기—청년기—장년기의 과정을 거쳐 노년기를 맞는다. 노년기는 그 앞선 과정속에서 얻어진 삶의 결실을 맺는 최대의 삶의 결정인 것이다.

삶의 과정 과정을 최선을 다해 임하면 최후의 자리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바르셀로나에서의 김미정이나 황영조처럼. 卄

마음과 마음을 잇는  
크리스마스 쉼 운동